살충제 계란 관련 중국 현지 동향 분석(`17.8월)

자료조사 : aT 베이징지사

<8.4>

❑ **관영 언론, 네덜란드 계란 살충제 검출을 보도**

○ 8월 3일 네덜란드 소재 147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이 검출되었음으며, 해당 계란들이 프랑스, 영국, 독일, 폴란드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화통신(新华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news.xinhuanet.com/2017-08/04/c_1121428957.htm

<8.6>

❑ **중국 질검총국, 유럽 살충제 계란의 중국 미반입을 공표**

○ 중국 질검총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덜란드를 비롯한 EU 회원국의 신선계란 및 계란제품은 '검험검역을 위한 자격(检验检疫准入资格)' 이 없어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한 품목이므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표

※ 출처 : http://www.aqsiq.gov.cn/zjxw/zjxw/zjftpxw/201708/t20170806_494927.htm

<8.11>

❑ **관영 언론, 살충제 계란 유럽 전역 파문 확대 추이를 보도**

○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전역에서 유통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환구시보(环球网) 등 매체가 보도

※ 출처 : http://world.huanqiu.com/hot/2017-08/11114174.html

<8.12>

❑ **관영 언론, 홍콩이 수입한 네덜란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되었음을 보도**

○ 홍콩식품안전센터(香港食物安全中心)가 홍콩에서 수입하여 시중 유통 중인 네덜란드산 계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관련 계란들은 홍콩 당국이 판매 중단시킬 방침임을 환구시보(环球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7-08/11116773.html

<8.15>

❏ 관영 언론, 한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보도

○ 한국 경기도 소재 1개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15일 한국정부가 발표하였으며, 3대 유통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계란 판매를 중지하였음을 신화통신(新华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news.xinhuanet.com/2017-08/15/c_1121488497.htm

<8.17>

❏ 중국 농업부, 중국은 살충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 공표

○ 17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농업부 언론 브리핑에서 유럽 계란은 중국 내륙시장에 수입된 내역이 없으며, 중국은 피프로닐 등 농약성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출처 : http://www.moa.gov.cn/sjzz/jgs/chinafamilyfarm/tzgg/gzdt/201708/t20170818_5788123.htm

<8.18>

❏ 관영 언론, 한국 친환경 양계장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되었음을 보도

○ 한국정부가 전국의 1,239개 양계장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9개 양계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31개의 친환경 양계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신화통신(新华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news.xinhuanet.com/2017-08/18/c_1121507386.htm

<8.21>

❏ 관영 언론, 한국의 살충제 성분 검출 양계장 52곳으로 증가했음을 보도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20개 양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 검사 결과, 현재까지 52개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환구시보(环球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7-08/11156346.html

<8.22>

❏ 관영 언론, 대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보도

○ 대만 농업부가 20일까지 양계장 45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곳에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해당 계란들은 모두 회수하였음을 신화통신(新华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m.xinhuanet.com/2017-08/22/c_1121525251.htm

<8.23>

❏ 중국 농업부, <가금류 알 생산 품질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공표

○ 중국 농업부 판공청은 최근 유럽과 한국의 살충제 오염 계란을 예로 들며, 가금류 알 제품의 유해물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 농약 · 양식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요지의 통지를 발표

※ 출처 :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8/t20170823_5792582.htm

<8.27>

❏ 관영 언론, 대만 전수조사 결과 44개 양계장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보도

○ 대만 농업부는 대만 양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일 44개 양계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계란 100만개를 회수하였다고 신화통신(新华网) 등에서 보도

※ 출처 : http://m.xinhuanet.com/2017-08/26/c_1121548068.htm

<8.28>

❏ 일부 언론, 중국 당국의 살충제 계란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

○ 중국망(中国网) 등 일부 언론은 홍콩 등 중국 일부지역의 계란에서 이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중국의 피프로닐 관리에 허점이 있으므로, 중국 내륙 각 지역의 가금류 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

※ 출처 : http://opinion.china.com.cn/opinion_27_170427.html

<요약 및 분석>

❏ 중국당국 및 관영언론은 유럽 · 한국 · 대만 · 홍콩의 살충제 계란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륙은 살충제 계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 하지만 중국 내륙의 살충제 계란 관련 실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중국 당국의 살충제 계란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 한편 계란 성분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은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금회 한국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이 대중 한국 식품 수출에 단기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계란성분을 포함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검역기준 완화 및 대중 수출 개시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